

12/26(화) 전도서 1

전도서 1:1-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서는 젊은 시절에 기록한 아가와 중년에 기록한 잠언 그리고 노년에 기록한 전도서가 있습니다. 비록 열왕기상 말씀에는 솔로몬이 죄를 짓고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말년에 회개하고 그의 실수를 바탕으로 인생을 깊이 성찰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개요

전도서의 히브리어 이름은 '코헬레트'로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사람들을 모아서 연설하는 사람을 뜻하고 헬라어의 '에클레시아'의 뜻인 '집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Ecclesiastes'라고 부르고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전도서(도를 전하는 책)'라고 호칭합니다. 전도서는 학자들에 따르면 솔로몬이 B.C. 931년 경에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분열되기 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서는 유대 전통에 따르면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일차적으로 솔로몬이 성경의 영감을 받아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전 12:9,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또 구약의 이스라엘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기록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삶(해아래서의 삶)의 허무함을 말씀합니다. 둘째로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인생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행복이자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전도서는 12장까지의 말씀으로서 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도서의 구조>

- 1) 1:1-11 삶을 논함. 삶의 허무성.
- 2) 1:12-12:8 삶의 모호함. 허무한 삶의 증거들.
- 3) 12:9-14. 삶을 평가함. 허무한 삶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는 삶의 허무함을 노래하면서 말씀의 교훈을 시작합니다(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인생을 허무함을 노래하면서 삶을 논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가 책에서 보거나 누군가에게 들은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일평생을 살면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은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입었지만 그 결론은 허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솔로몬이 허무하다고 고백한 이 세상의 지혜와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의 다양한 허무함을 노래합니다(인생의 허무함(1장), 쾌락의 허무함(2장), 지혜의 허무함(2장), 노동의 허무함(3장), 돈과 재물의 허무함(5장), 의로움의 허무함(8장)). 이 모든 허무함의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 모두는 잠시 살다가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롬 5: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고 솔로몬은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에서 인생의 허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누린 이 세상의 지혜, 부귀와 영광, 그리고 건강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삶의 참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유일한 인생의 목적과 행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허무함을 느끼고 솔로몬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요일 4:10-11,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삶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전 12:13-14,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난민들을 위한 기도:** 전쟁과 기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정부와 종교적 핍박으로 인해 자국을 떠나 난민들로 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삶의 터전과 기회를 열어주시옵소서.
3.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홍성진 선교사님(페루 아마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교회를 위한 기도:** 영유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